

학습 자료

— 대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노트 —



14차시.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1. 권리자의 대처 방법

내가 창작한 것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자임을 입증** : 창작한 본인,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저작자가 되기도 해요. 저작권은 재산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저작권법의 보호 요건** : 창작성 있는 표현에 대해서만 저작권법이 보호합니다. 단순한 사실,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한다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침해를 입증** :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의 저작권을 제3자가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적 구제수단과 형사적 구제수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민사적 구제수단

① 침해의 정지 청구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에는 먼저 침해 행위를 중단 시킬 필요가 있겠지요. 저작권법에서는 더 이상 침해하지 말고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물어내라고 해야겠지요. 이를 위해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으며 손해가 발생했는데, 권리침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을 입증해야 됩니다.

테레사의 연인 사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9.12.8. 선고 88가합2442 판결)

이 사건 방송 이후 원고의 자전적 소설인 테레사의 연인의 판매부수가 둔화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저작권 침해는 손해액의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침해자가 얻은 이익,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더라도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청구할 일이 생긴다면 아래 조문을 참조하세요.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명예 회복의 청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① 징역 또는 벌금형

민사적 구제수단과는 별도로 경찰에 저작권 침해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도록 고소하는 것이지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6.30>

6. 삭제 <2011.6.30>

[제목개정 2011.12.2]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제목개정 2011.12.2]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12.2]

저작권법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12.2>

[전문개정 2011.6.30]

② 친고죄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침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건을 수사하기도 합니다만 권리자의 고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소위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면 침해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저작권자가 용서해주기만 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비친고죄 :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대학생 수준의 대응방법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당할 때마다 법원에 가서 제소하고, 경찰에 고소한다면 힘들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경고장 발송

먼저 경고장을 발송해 보세요. 침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침해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장 작성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 사실을 적어주고, 즉시 중지할 것,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할 것 등을 적고, 때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이 역시 특별한 형식은 없는데, 수신인과 발신인을 적고 내용과 날짜 정도를 적으면 됩니다. 3부를 작성, 우체국에 가서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 확인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 하는데, 한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부는 작성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② OSP에게 게시 중단 요청

만약 인터넷을 통해 침해가 되고 있는 경우라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OSP에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게시물의 복제

전송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면 OSP는 해당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줄 것입니다.

③ 조정 신청

내 레포트를 베꼈다고 친구를 고소하기는 좀 그렇지요. 억울하게 저작권이 침해되어도 법원이나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럴 때 조정제도를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달 이내에 처리되고 비용도 최대 1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조정제이란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1~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 중 하나로서 신속·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간편한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방, 우편 및 온라인 신청 다 가능합니다.

- 접수처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9 6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 문의전화 : 02)2660-0104
- Fax : 02)2660-0109
- <http://adr.copyright.or.kr/main/index.do>

2. 침해자의 대처 방법

1) 저작권 침해와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

① 형사처벌의 가능성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잘 몰라서, 또는 의도하지 않게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잘못하면 전과자가 되고 교도소에 갈지도 모른다고 하면, 저작권법이 너무 무섭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최근 ‘저파라치’라고 해서, 일부 범무법인들이 저작권 침해자를 대상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범무법인에 와서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지요. 이는 친고죄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권리자만 용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도 이에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회 문제화된 사례가 없진 않지만, 원칙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손해를 배상해주고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이지요. 앞으로의 이용을 위한 허락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자가 지나치게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은 이러다가 전과자가 되고 취업도 못하는 거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이고 영리적으로 대량의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킨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쉽게 전과자가 되지는 않는 것이 실무이기 때문입니다.

②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권리자의 무분별한 고소로 인해 어린 나이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버리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1년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26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작권 인식점수는 24.9%로 나와 대부분이 저작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2009년 3월부터 시행해 온 청소년 고소각하제도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8만 건이 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이 있었고 이중 청소년이 2만 건이 넘었지만, 청소년은 단 17건만이 기소되었을 뿐입니다.

2) 저작권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저작권 위반 사실이 없는데,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걱정하지 마시고, 출석하셔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간혹 아이디어의 본인 확인이 잘못되거나, 합법적인 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석요구를 한다면 관할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데 서울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잘 설명하시는 것만으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과거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

대부분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는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초범이시라면, 1-2개 정도의 음악, 영화 공유로

형사처벌까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되 잘 모르고 위반했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따라 저작권법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큼니다.

4) 대량의 자료를 공유한 경우

많은 수의 저작물을 유통시킨 경우라면, 학생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즘 웹하드 등에서 업로더에게 포인트나 사은품을 주는 경우가 있어, 대학생들도 수천 곡의 음악파일을 업로드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카페나 블로그에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운 받아가면 그만큼 저작권자는 판매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여 파일을 공유하기 때문에, 며칠만 업로드했다가 지우더라도 권리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습니다. 소위 해비업로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권리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면, 형사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들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파일을 업로드 한 것으로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업로드한 저작물이 많다면 벌금형은 피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